

고용구조 변화와 임금불평등: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반 정 호*

I. 머리말

최근 고용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나면서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총량적 수준에서 개선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8%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4분기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32천 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30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6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한 3.2%를 기록해 2010년 들어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지표의 개선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이슈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었던 2009년에 상용직 일자리의 고용조정이 1997년 외환위기 시기 때처럼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2006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던 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점부터 2002까지 감소해 오던 상용직 비중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이와 같은 증가세는 계속되었다(황덕순, 2010).

고용지표의 개선, 상용직 고용비중 증가 등은 향후 고용전망을 밝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signal)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와 같은 총량적 고용지표의 개선이 고용의 질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임금소득의 지니계수는 1999년 0.286에서 2008년 현재 0.341까지 증가하는 등 임금근로자의 소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득분배가 악화되고 있고(한국노동연구원, 2010),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에서 제기한 노동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이 임금격차(불평등) 및 빈곤을 해소하는 등의 질적 향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고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임금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최근 발견되고 있는 상용직 증가와 일용직 감소라는 고용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고용과 평등의 관계

신고전과 경제학은 고용과 평등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는 기본논리를 가지고 있다(Blank, 1997; Atkinson, 1999). 즉 임금격차 축소 등의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고용창출이 훼손되거나, 고용창출을 촉진하다 보면 임금격차와 빈곤이 확대된다는 논리이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성과는 좋으나 소득불평등은 증가하는 반면, 보호된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성과는 나쁘나 소득불평등은 감소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용과 평등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전병유, 2006).

그러나 이러한 고용과 평등의 상충관계가 반드시 필연적이지만은 않고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병유(2006)의 지적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와 고용률, 노동의 양과 노동의 질, 실업과 저임금, 실업과 빈곤 등 고용과 평등의 상충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고용률의 증가가 소득분배의 악화를 동반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이 고용률 증가와 함께 지니계수 감소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의 사례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Kenworthy(2004)는 소득불평등의 완화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과 평등의 관계를 과거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그 관계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유력해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나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단기외채비중 역시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7%대의 실업률이 30만~4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인해 3% 초반대로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의 3.9%와 1980

년대의 3.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외환위기 이후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나 빈곤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고용촉진 정책이 저임일자리의 비중 증가와 빈곤층의 확대로 나타나 고용촉진이 불평등을 상충시킨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노대명 외(2008)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각종 지표가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되는 현상을 ‘실현위기적 징후’¹⁾라고 표현하면서, 이와 같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시스템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고용불안정의 강화와 분배구조 악화를 지적하고 있다.

최근 고용지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한 2010년 3월 기준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시간당 임금기준 26.5%로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과 8월의 25.6%, 26.2%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고용증가가 저임금근로의 증가로 나타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age earners)를 대상으로 한 저임금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현재 20.5%로 2009년 8월 16.6%에 비해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통계지표를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중상위층에서 저임금 고용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용의 양적 확대가 고용의 질의 개선을 동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회복과 정책효과로 인해 고용이 개선되고

〈표 1〉 중상위층별 고용비중과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3	2009.8	2010.3	
고용비중	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상용직	48.8	51.1	52.8	53.0	53.7	55.2	56.6	57.1	57.5	
	임시직	34.3	34.4	33.0	32.6	32.7	31.8	30.9	30.7	31.1	
	일용직	16.9	14.4	14.2	14.5	13.6	13.1	12.6	12.2	11.5	
저임금근로자 비중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근로자	24.1	26.3	26.6	25.8	27.4	26.0	25.6	26.2	26.5
		상용직	7.2	9.0	8.5	8.7	8.8	7.8	7.4	8.2	9.4
		임시직	37.0	41.0	41.9	41.5	45.8	44.9	44.4	46.1	48.1
	월평균 임금 기준	일용직	53.5	56.5	58.4	55.7	61.3	61.2	63.1	62.5	63.3
		전일제근로자	17.4	21.3	20.2	21.4	20.6	15.9	15.7	16.6	20.5
		상용직	4.8	7.1	6.0	7.7	7.1	4.8	4.8	5.0	7.7
		임시직	28.2	35.4	34.2	35.8	36.2	29.6	29.0	33.2	40.8
일용직	45.2	53.7	51.9	53.7	53.7	45.1	48.7	46.0	5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 1) 실현 위기의 특징은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은 전체적으로 저지되지만 경기의 활력은 구매력의 약화로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위기구조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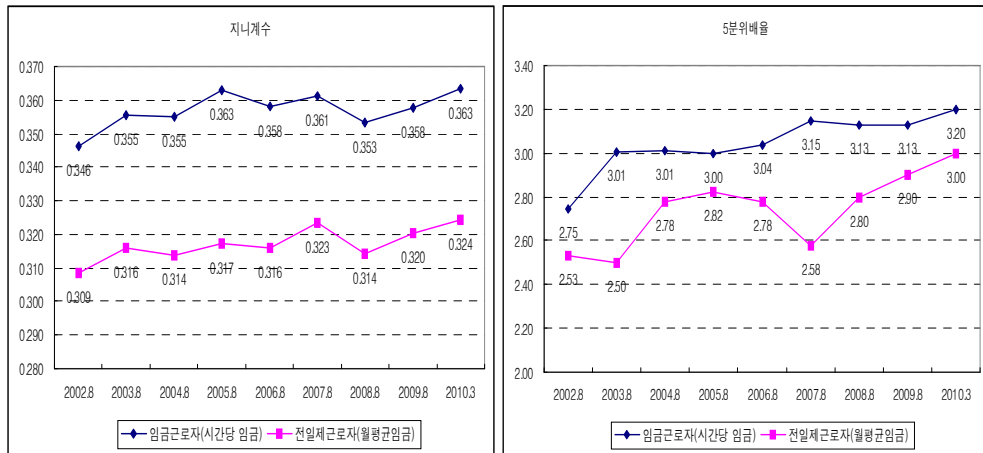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고용의 질적 개선이 동반되는 형태로 고용량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수준의 작업의 하나로 이하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 불평등 실태분석 및 요인분해를 통해 임금소득의 분배현황 및 고용변동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임금불평등 실태: 예비적 고찰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 활용한 주요지표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지표이다. 지표산출을 위해 사용한 임금소득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경향 조사시점의 3개월 평균임금)이다. <표 2>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종사상지위별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을 보여 주고 있다.2)

우선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기준 지니계수는 2002년 8월 0.346에서 2010년 3월 현재 0.36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추세적으로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

[그림 1] 임금근로자 임금불평등도 추이변화



2) 지니계수는 소득 순으로 인구의 누적분포와 소득누적비율의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분배균등선(45°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비율로 구해지며,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또한 5분위배율은 전체 표본가구의 소득수준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2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여 2005년 0.363까지 증가했고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8년 8월에는 0.353까지 하락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기준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기준 지니계수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임금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임금근로자의 성별로 임금불평등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지니계수가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불평등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소득 5분위배율은 40, 50대 임금근로자에서 가장 높게 분석된다. 학력별로는 고졸집단과 대학 이상 집단에서 임금불평등도가 높고 2010년 3월 기준 5분위배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임근로자와 저임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임금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특징이 나타난다. 상용직의 경우는 2002년 8월 0.298이었던 지니계수가 2010년 3월 현재 0.315까지 증가했으며, 임시직의 경우는 같은 기간 0.273에서 0.278까지 상승했다.

〈표 2〉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실태: 시간당 임금 기준

		지니계수					5분위배율				
		2002	2004	2006	2008	2010	2002	2004	2006	2008	2010
전 체		0.346	0.355	0.358	0.353	0.363	2.75	3.01	3.04	3.13	3.20
성	남성	0.327	0.330	0.340	0.337	0.348	2.65	2.84	2.92	3.00	2.97
	여성	0.318	0.340	0.333	0.321	0.325	2.27	2.50	2.50	2.55	2.48
연령	29세 이하	0.259	0.270	0.262	0.260	0.256	2.13	2.21	2.24	2.25	2.16
	30 ~ 39세	0.307	0.303	0.302	0.294	0.292	2.53	2.63	2.71	2.60	2.55
	40 ~ 49세	0.374	0.377	0.380	0.372	0.383	3.47	3.75	3.88	3.63	3.75
	50 ~ 59세	0.411	0.422	0.420	0.414	0.413	3.56	3.82	4.09	4.29	3.75
	60세 이상	0.421	0.387	0.431	0.376	0.431	2.73	2.56	2.67	2.40	2.39
학력	초졸	0.297	0.303	0.300	0.259	0.284	2.08	2.29	2.19	2.00	2.06
	중졸	0.288	0.303	0.299	0.277	0.276	2.21	2.35	2.25	2.06	2.04
	고졸	0.312	0.328	0.322	0.317	0.325	2.40	2.62	2.53	2.56	2.50
	초대졸	0.282	0.277	0.275	0.276	0.280	2.18	2.25	2.29	2.20	2.40
	대학 이상	0.301	0.294	0.302	0.290	0.307	2.43	2.54	2.63	2.50	2.57
종사상 지위	상용	0.298	0.301	0.304	0.299	0.315	2.56	2.68	2.68	2.50	2.67
	임시	0.273	0.288	0.295	0.281	0.278	2.00	2.16	2.17	2.13	2.19
	일용	0.346	0.338	0.302	0.259	0.283	2.40	2.51	2.36	2.14	2.25
	정규	0.328	0.336	0.338	0.338	0.347	2.78	3.05	3.13	3.11	3.00
	비정규	0.382	0.362	0.363	0.339	0.334	2.63	2.80	2.74	2.54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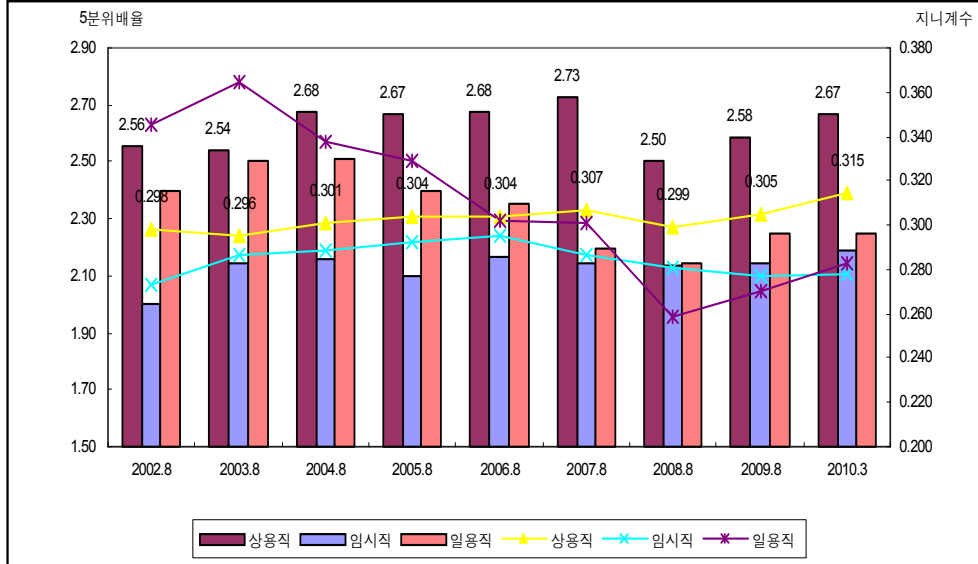
주: 2002 ~ 08년은 8월, 2010년은 3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3>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실태 : 전일제근로자 월평균 임금 기준

		지니계수					5분위배율				
		2002	2004	2006	2008	2010	2002	2004	2006	2008	2010
전 체		0.309	0.314	0.316	0.314	0.324	2.53	2.78	2.78	2.80	3.00
성	남성	0.281	0.285	0.292	0.292	0.304	2.10	2.50	2.43	2.31	2.50
	여성	0.276	0.288	0.285	0.281	0.289	2.07	2.14	2.06	2.38	2.22
연령	29세 이하	0.218	0.221	0.218	0.216	0.213	2.07	2.00	2.00	2.00	1.89
	30 ~ 39세	0.270	0.263	0.261	0.257	0.257	2.22	2.50	2.27	2.32	2.14
	40 ~ 49세	0.337	0.336	0.341	0.335	0.347	3.13	3.33	3.06	3.40	3.33
	50 ~ 59세	0.364	0.378	0.375	0.375	0.376	2.86	3.25	3.75	3.42	3.50
	60세 이상	0.357	0.334	0.373	0.327	0.393	2.20	2.26	2.00	2.14	2.14
학력	초졸	0.266	0.275	0.281	0.249	0.273	2.20	2.00	2.17	2.00	2.14
	중졸	0.257	0.269	0.263	0.248	0.251	2.14	2.14	2.14	2.00	2.10
	고졸	0.275	0.286	0.283	0.281	0.288	2.27	2.50	2.22	2.20	2.40
	초대졸	0.257	0.249	0.246	0.244	0.253	2.25	2.00	2.00	2.08	2.08
	대학 이상	0.277	0.268	0.274	0.271	0.287	2.33	2.18	2.33	2.47	2.58
종사상 지위	상용	0.270	0.272	0.274	0.274	0.290	2.41	2.33	2.38	2.29	2.50
	임시	0.233	0.238	0.241	0.233	0.243	1.94	2.14	1.88	2.00	2.06
	일용	0.271	0.280	0.267	0.230	0.268	2.40	2.60	2.22	2.14	2.50
	정규	0.298	0.301	0.300	0.304	0.315	2.50	2.50	2.60	2.73	2.50
	비정규	0.321	0.313	0.319	0.297	0.293	2.50	2.57	2.40	2.35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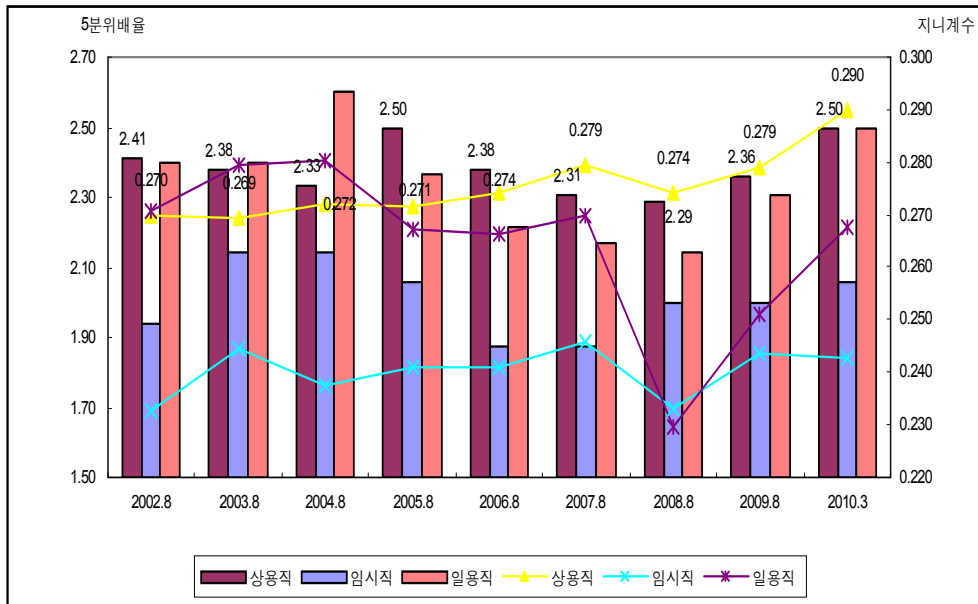
주자료: <표 2>와 동일.

[그림 2] 종사상지위별 소득불평등도 추이 변화: 시간당 임금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 종사상지위별 소득불평등도 추이 변화: 전일제근로자 월평균 임금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반면 일용직 근로자들은 2002년 0.346이었던 지니계수가 2010년 3월 현재 0.283까지 낮아졌다. 5분위배율에 있어서도 상용직은 2.56배에서 2.67배, 임시직의 경우도 2.00배에서 2.19배로 증가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용직의 경우는 2.40배에서 2.25배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전일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두 기준 모두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고용의 증가와 일용직 고용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용직 임금불평등은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반면, 비교적 최근(2009년 8월과 2010년 3월)의 불평등도 증가를 제외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IV. 고용변동과 임금불평등: 요인분해

앞에서 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종사상지위별 임금불평등 정도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상용직 증가와 일용직 감소로 특징되는 최근의 고용변동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지니계수 등의 불평등 지표들은 전체인구에 대한 총괄적 지표로서 구체적인 분배상태와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 MLD)³⁾을 이용한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종사상지위별 불평등 기여도(정태적 요인분해)와 고용변동(종사상지위의 구성변화)에 따른 임금불평등 변화(동태적 요인분해)를 살펴본다. MLD 지표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종사상지위의 하위요소별로 구분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불평등을 집단내 불평등도와 집단간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다.

$$MLD^t = \sum_g w_g^t \cdot MLD_g^t + \sum_g w_g^t \cdot \ln \frac{\bar{Y}}{\bar{Y}_i}$$

여기에서 w_g 는 요인특성에 따른 특정집단(g)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중이며, MLD_g 는 한 집단 안에서의 불평등 정도를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우변의 첫째항은 집단내 불평등도(within-group component)를 나타내며, 둘째항은 집단간 불평등도(between-group component)를 나타낸다.

한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임금불평등도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즉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임금불평등도의 변화를 집단내 불평등의 순효과, 집단간 불평등 변화의 임금효과, 집단구성의 변화로 인한 효과로 분해하는 것이다.

$$\begin{aligned} \Delta MLD &= MLD^t - MLD^0 \\ &= \underbrace{\sum_g \bar{w}_g \cdot \Delta MLD_g}_{(A)} + \underbrace{\sum_g \bar{w}_g \cdot \Delta \ln \left[\frac{\bar{y}_0}{\bar{y}_g} \right]}_{(B)} + \underbrace{\sum_g MLD_g \Delta w_g + \sum_g \left[\ln \frac{\bar{y}}{\bar{y}_g} \right] \Delta w_g + \sum_g \bar{w}_g \Delta \left[\ln \frac{\bar{y}}{\bar{y}_0} \right]}_{(C)} \end{aligned}$$

이때 \bar{w}_g 는 각 집단별 가중치의 두 기간 평균, Δw_g 는 각 집단별 가중치의 변화분, \bar{y} 는 각 기의 전체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또한 $\bar{y}_0 = \sum_g w_g^0 y_g^t$ 이며 이는 집단별 구성비가 불변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전체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위 식에서 A)는 종사상지위 구성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단내 불평등도의 변화, B)는 종사상지위 구성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단간 불평등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C)는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사상지위의 구성비중 변화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도의 변화분이다. 예를

3) 대수편차평균은 소득불평등 지표의 하나로 $MLD = \frac{1}{n} \sum_i \ln \frac{\bar{Y}}{Y_i}$ 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bar{Y} 는 모집단 전체임금, Y_i 는 가구 i 의 임금, n 은 개인의 수이다. 만일 임금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모든 Y_i 가 \bar{Y} 와 같은 값을 가질 것이므로 그 값은 0이 되며, 반대로 불평등한 분배일수록 그 값은 커지게 된다. 요인분해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병화·강신욱 외(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들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간의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 구성변화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불평등도의 변화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에서는 종사상지위별 임금불평등을 정태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기준 임금불평등도(MLD)는 2003년 0.21253에서 2010년 3월 현재 0.22001까지 증가한 상태로 앞에서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임금불평등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종사상지위별로 가장 임금불평등이 심화되었던 집단은 일용직으로 MLD지표가 0.25086으로 전체 평균 MLD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용직 임금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 3월 현재 0.14553까지 낮아졌다. 반면 상용직의 경우는 2003년 8월 0.14348에서 2010년에 0.16262까지 증가해 일용직과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해서 종사상지위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우선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73.9%로 설명하고 집단간 불평등이 26.1%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각 종사상지위 집단 내에서 발생한 불평등

<표 4> 임금불평등의 종사상지위별 정태적 요인분해(시간당 임금 기준)

		평균임금 (시간당임금)	구성비	집단별 불평등 (MLD)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			상대적 기여도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합계	
2003	상용직	9,602	51.1	0.14348	0.07338	-0.13928	-0.06590	-31.0
	임시직	5,086	34.4	0.13812	0.04756	0.12506	0.17261	81.2
	일용직	4,513	14.4	0.25086	0.03619	0.06963	0.10582	49.8
	전체	7,313	100.0	0.21253	0.15712 (73.9)	0.05540 (26.1)	0.21253	100.0
2006	상용직	11,229	53.7	0.15262	0.08195	-0.14311	-0.06117	-28.6
	임시직	5,901	32.7	0.14687	0.04801	0.12317	0.17118	80.0
	일용직	4,724	13.6	0.16459	0.02241	0.08159	0.10400	48.6
	전체	8,602	100.0	0.21402	0.15237 (71.2)	0.06165 (28.8)	0.21402	100.0
2007	상용직	11,955	55.2	0.15441	0.08520	-0.14747	-0.06227	-28.7
	임시직	6,050	31.8	0.13559	0.04306	0.13145	0.17452	80.5
	일용직	4,850	13.1	0.16432	0.02147	0.08296	0.10443	48.2
	전체	9,151	100.0	0.21667	0.14973 (69.1)	0.06694 (30.9)	0.21667	100.0
2010	상용직	13,559	59.7	0.16262	0.09714	-0.14631	-0.04917	-22.4
	임시직	6,631	29.9	0.12707	0.03805	0.14085	0.17890	81.3
	일용직	5,117	10.3	0.14553	0.01502	0.07527	0.09028	41.0
	전체	10,613	100.0	0.22001	0.15021 (68.3)	0.06980 (31.7)	0.22001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이 전체 임금불평의 약 74% 정도를 기여한다. 정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분석된 특징적 사실은 <표 4>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3월의 경우 각 종사상 지위 집단 자체의 불평등 기여율은 68.3%까지 낮아졌고, 반대로 집단간 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은 31.7%까지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 2003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종사상지위 내부에서 발생한 임금불평등에 의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이 상당부분 설명되고 있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대신 종사상지위 집단 사이에서 발생한 불평등(집단간 불평등)에 의해 전체 임금불평등의 설명력이 증가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상용직의 임금불평등 수준은 전체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그 영향력 정도는 31.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 3월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22.4%로 8.6%p 감소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는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일용직의 경우는 2003년 49.8%에서 2010년 3월 현재는 41.0%까지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종사상지위별로 동태적으로 분해한 결과이다. 동태적 요인분해는 2003~06년과 2007~10년 두 기간을 분리하여 이루어졌다. 두 기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변화는 0.00149와 0.00334로 모두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집단내 불평등의 순효과, 집단간 불평등 변화의 소득효과, 집단 구성의 변화 효과로 분해하면, 두 기간 모두 집단간 불평등 변화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종사상지위의 구성변화에 의한 효과는 크지 않은

<표 5> 임금불평등의 종사상지위별 동태적 요인분해(시간당 임금 기준)

		집단별 MLD변화	집단내불평등 변화	집단간불평등 변화	구성 변화	종사상 지위별 상대기여도
2003 ~ 06	상용직	0.00474	0.00479	-0.00590	0.00584	318.5
	임시직	-0.00144	0.00294	-0.00117	-0.00321	-96.5
	일용직	-0.00181	-0.01210	0.01395	-0.00367	-122.0
	절대기여도	0.00149	-0.00437	0.00689	-0.00103	
	상대기여도	(100.0)	(-293.1)	(462.1)	(-69.1)	(100.0)
2007 ~ 10	상용직	0.01310	0.00472	-0.00686	0.01524	392.0
	임시직	0.00439	-0.00263	0.00684	0.00018	131.3
	일용직	-0.01414	-0.00220	0.00705	-0.01899	-423.3
	절대기여도	0.00334	-0.00011	0.00703	-0.00358	
	상대기여도	(100.0)	(-3.2)	(210.5)	(-107.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것으로 나타난다. 2003~06년 기간동안의 임금불평등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불평등은 증가했는데 상용직과 임시직 집단 내의 불평등 악화가 전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반면, 일용직 내의 불평등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종사상지위 집단간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일용직과 다른 집단(상용직 및 임시직)의 분배악화가 전체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10년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직의 집단별 불평등 변화가 두드러진다. 집단내 불평등을 살펴보면 상용직 내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기간 동안의 종사상지위의 구성변화가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상용직과 임시직은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일용직 구성변화는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종사상지위별 상대기여도의 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임금불평등의 종사상지위별 정태적 요인분해(전일제근로자 월평균 임금 기준)

		평균임금 (시간당임금)	구성비	집단별 불평등 (MLD)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			상대적 기여도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합계	
2003	상용직	196	54.7	0.11913	0.06512	-0.13366	-0.06854	-40.9
	임시직	107	33.9	0.09917	0.03361	0.12208	0.15569	93.0
	일용직	88	11.4	0.14388	0.01647	0.06380	0.08027	47.9
	전체	153	100.0	0.16742	0.11520 (68.8)	0.05222 (31.2)	0.16742	100.0
2006	상용직	219	57.9	0.12308	0.07122	-0.13056	-0.05934	-35.5
	임시직	120	31.6	0.09682	0.03055	0.11829	0.14884	89.1
	일용직	96	10.6	0.13155	0.01392	0.06363	0.07755	46.4
	전체	174	100.0	0.16704	0.11569 (69.3)	0.05135 (30.7)	0.16704	100.0
2007	상용직	230.2	59.6	0.12707	0.07569	-0.13254	-0.05685	-32.5
	임시직	123.2	30.4	0.10109	0.03073	0.12237	0.15310	87.6
	일용직	96.6	10.0	0.13692	0.01374	0.06474	0.07848	44.9
	전체	184.2	100.0	0.17473	0.12016 (68.8)	0.05457 (31.2)	0.17473	100.0
2010	상용직	251.5	65.3	0.13641	0.08911	-0.12193	-0.03282	-18.8
	임시직	133.8	27.5	0.097714	0.02685	0.12219	0.14904	85.2
	일용직	106.0	7.2	0.13862	0.00998	0.04876	0.05874	33.6
	전체	208.7	100.0	0.17495	0.12594 (72.0)	0.04902 (28.0)	0.1749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6>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불평등도를 정태적으로 분해한 것이다.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한 집단내 불평등의 기여도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의 경우 절대적 기여도와 상대적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수준이 점차적으로 미약해져 결과적으로 전체 임금불평등도가 증가되는 반면, 일용직의 불평등 기여도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 2003년 8월 기준 일용직의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47.9%에서 2010년 3월 현재 33.6% 수준까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일제근로자의 고용변동이 전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한 결과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2003~06년의 경우,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은 소폭 하락했다. 이와 같은 임금불평등의 하락은 종사상지위의 구성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의 하락이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표 7 참조). 반면 상용직의 증가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2007~10년 기간동안에는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구성변화에 의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반면, 집단내 불평등 변화에 의해 대부분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내 불평등은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직과 일용직 내의 임금불평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7> 임금불평등의 종사상지위별 동태적 요인분해(전일제근로자 월평균 임금 기준)

		집단별 MLD변화	집단내불평등 변화	집단간불평등 변화	구성 효과	상대 기여도
2003~06	상용직	0.00920	0.00222	-0.00035	0.00733	-2444.5
	임시직	-0.00685	-0.00077	-0.00159	-0.00449	1820.3
	일용직	-0.00273	-0.00136	0.00269	-0.00406	724.2
	절대기여도	-0.00038	0.00009	0.00075	-0.00122	
	상대기여도	(100.0)	(-24.5)	(-198.4)	(321.9)	(100.0)
2007~10	상용직	0.02403	0.00583	-0.00068	0.01887	10828.3
	임시직	-0.00406	-0.00098	0.00150	-0.00458	-1828.5
	일용직	-0.01975	0.00015	-0.00039	-0.01950	-8899.8
	절대기여도	0.00022	0.00500	0.00043	-0.00521	
	상대기여도	(100.0)	(2,273.7)	(194.6)	-2,367.4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상용직 증가와 일용직 감소라는 고용변동이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지표를 통해 불평등 실태와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을 통한 임금소득의 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으로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용직 내의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일용직의 임금불평등도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기간(2003~10년) 동안 임금불평등 변화를 요인분해하면, 전반적으로 집단내 혹은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에 의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상용직 증가 및 일용직 감소 등의 고용변동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확대(혹은 감소)시키는 데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상용직 고용비중의 증가는 전체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데 일정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지니계수나 대수편차평균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최근의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이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동반하고 있는지를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평가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면 상용직 임금불평등 증가와 일용직에서의 감소추세는 일정부분 이들 종사상 지위의 고용비중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절대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불평등 수준은 반대로 악화되고 있다. 즉 최근 들어 노동시장에서 상용직 고용량이 증가하지만 상용직 내부의 임금분포를 균등하게 만들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일용직 고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용직 임금의 불평등도와 분배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고,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저임근로 비중이 증가하는 사실은 고용량의 변화가 임금소득의 분배를 보다 균등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변동과 임금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이 글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수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구조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포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에는 임금근로자의 성, 연령 등의 공급측 요인의 변화와 산업이나 규모와 같은 수요측 변화요인들을 고려한 분석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된다면, 고령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의한 고용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KCI**

<참고문헌>

- 노대명 외(2008),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고용·복지 연계 모형』,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화·강신욱 외(2008),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효과 추이 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전병유(2006), 「고용의 위기와 고용전략의 모색」, 『동향과 전망』 66, pp.32 ~ 62.
- 한국노동연구원(2010), 『2010년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황덕순(2010), 「최근 상용직 근로자 증가 실태분석」, 『노동리뷰』 62, 한국노동연구원, pp.3 ~ 17.
- Atkinson, A. B.(1999),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Rolling-Back the Welfare State*, Cambridge, MA : MIT Press.
- Blank, Rebecca(1997), "Research and Policy Reflections on the Structural Changes Occurring in North American Labour Markets," in Michael G. Abbott, Charles M. Beach, and Richard P. Chaykowski(eds.), *Transition and Structural Change in North American Labour Markets*, Kingston, Ontario: IRC Press at Queen's University.
- Kenworthy, L.(2004), *Egalitarian Capitalism*, New York, NY : Russell Sage Foundation.